국민 96% “화학물질 피해 심각”

환경부 · 국정홍보처, 법과 제도 미흡 탓 … 기업도 저감 노력 소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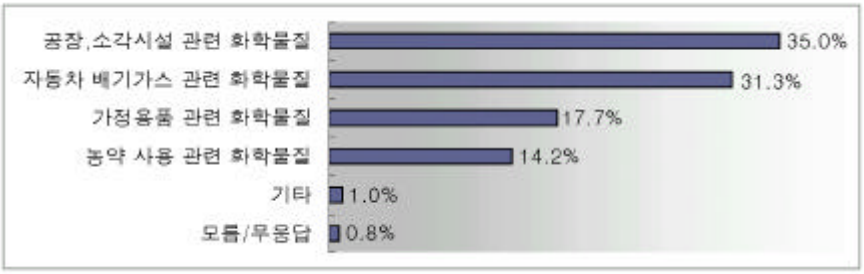
국민 대다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
환경부와 국정홍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테일러넬슨소프레스(티엔에스)에 의뢰해 11월22일 만 20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전체 응답자의 96%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고, 79%는 기업이 유해물질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.

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6.0%가 심각하다(매우 심각: 51.0%, 비교적 심각: 45.0%)고 답변했다.

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▷공장 · 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(35.0%) ▷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화학물질(31.3%)을 많이 지적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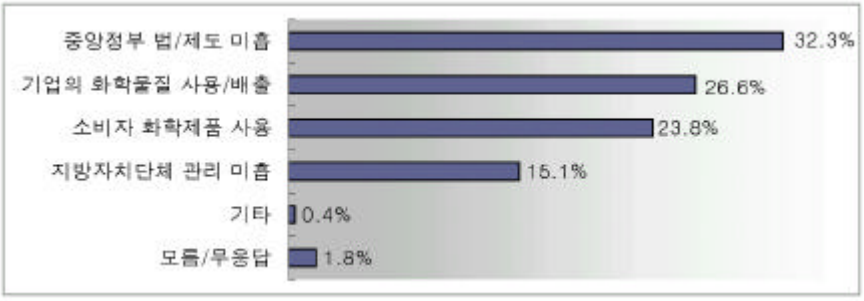
유해 화학물질 불안 요인



하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는 수질오염(31.6%), 쓰레기처리(24.9%), 대기오염(20.6%) 다음으로 유해화학물질 피해(10.2%)를 꼽았다.

유해화학물질 피해 발생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법 · 제도 미흡(32.3%)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,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(44.2%)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유해 화학물질 피해 발생 원인



한편,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는 지역주민(34.5%)과 지방자치단체(27.5%)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.

유해화학물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▷대기와 수계 등 자연환경의 화학물질 오염정도(38.9%) ▷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법(31.5%) 등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응답자들은 평소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을 TV/라디오/신문 등 언론매체(88.4%)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, 가장 효과적인 정보제공 수단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언론매체(82.8%)라고 답변했다.

또 응답자의 79.0%는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감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(전혀 노력 안함 : 14.7%, 별로 노력 안함: 64.3%)고 답변했으며,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.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해화학물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▷유해물질배출시설 교체 및 공정개선(54.2%) ▷유해물질 사용·배출 등에 대한 정보공개(20.6%)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.

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부와 민간부문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으로, 조사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은 ±3.1%이다.

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제도개선(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개정,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확대 등), 정보제공확대, 홍보강화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12/16>